

4. 國土 開發의 基本 計劃과 評價

- 全國을 'U'字型的 7 個 圈域으로 廣域 開發
- 95年 牙山灣圈과 釜山圈부터 段階的 開發
- 特徵은 地域 均衡 開發과 民資 誘致
- 民資 事業 參與 範圍 및 機會 擴大

- 全國을 'U'字型的 7 個 圈域으로 廣域 開發
 - (7 個 廣域 開發 圈域) 아산만권, 부산권, 군산-장항권, 대구-포항권, 광주-목포권, 광양만권, 대전권 등을 'U'자형의 임해 공단으로 개발
 - (圈域別 開發 方向) 아산만권은 수도권 기능 분담, 부산권은 국제 무역 중심지, 군산-장항권은 대중국 진출의 교두보, 대구-포항권은 환동해권 주도 항만 건설, 광주-목포권은 첨단 산업 기지 집중, 광양만권은 기간 산업 육성, 대전권은 중앙 행정 기능 분산 유치

 - 95年 牙山灣圈과 釜山圈부터 段階的 開發
 - (早期 開發 圈域) 아산만권과 부산권은 올해중 개발 계획을 완료, 내년부터 도시 개발, 항만 등 민간 투자가 가능한 사업을 우선 착수
 - (其他 圈域) 군산-장항권, 대구-포항권, 광주-목포권 및 광양만권은 올해 9월부터 계획 수립, 대전권은 내년에 계획 수립

 - 特徵은 地域 均衡 開發과 民資 誘致
 - (地域 均衡 開發) 수도권과 동남권 등 京釜軸에 집중 배치된 산업과 인구를 동, 서, 남해안 등 해안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 균형 개발에 역점
 - (民資 誘致) 2011년까지 7 개 권역(권역별 15조 원)을 개발하기 위해 17년동안 연평균 6조 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는데, 개발주체인 정부와 地自體의 財源(92년 市 재정자립도, 평균 65.2%)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규모 민자 유치가 불가피

 - 民資 事業 參與 範圍 및 機會 擴大
 - (民資 參與 範圍 擴大) 향후 건설 시장은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. 7 개 광역 개발권의 도로, 철도, 공단, 배후 신도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에 민자 참여의 범위를 확대
 - (地自體와 共同 事業 摸索) 향후 지방자치제 하에서 민간의 지역 개발 참여 방식은 단독 출자외에 제3섹터(지자체와 공동 출자 등) 방식 활용을 요망
- (김 선 덕)